

광양 송현마을 태양광시설 반발 격화

주민들 피켓·현수막 들고 시청 앞 시위
정현복 시장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광양시 진월면 송현마을 태양광발전시설공사와 관련, 13일 현재까지도 광양시와 주민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집회가 수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송현마을 주민 30여명은 광양시청 앞에서 ‘시장님! 송현마을 살려줘요’, ‘팔십 평생 모아 구입한 논 태양광발전이 날 죽이네’라고 쓰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수박 농사도 팽개치고 나와서 집회하고 있다”며 “광양시장은 다시 한번 허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 처리가 올바르게 검토하고 마을 주민 모두를 설득시킬 방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현복 광양시장은 출근길에 광양시청 정문에서 주민들과 마주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성의 없는 답변에 분노한 한 주민은 “우리는 하우스가 밭출이고 너네는 이곳 시정이 밭출이지 않냐”며 “태양광 공사

관련해서 명확한 답이라도 내려주고가지 무성의하게 가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쩌란 말이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공사와 관련 있는



광양시 진월면 송현마을 주민들이 지난 13일 오전 광양시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정현복 시장이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A공무원을 언급하며 “남편과 아들로 교묘하게 명의를 바꿔 송현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민들 피눈물을 나게 한다”며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공직생활의 자존심 모두 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며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웬 말이나”고 분노를 터트렸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B씨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드론심의 자체가 탁상행정을 입증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민생을 무시하고 소통 없는 불통 행정인 아닌 제대로 된 답변과 함께 다같이 행복한 광양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없는 농민들이기에 시장님만 믿는다”며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취소만이 우리 주민들이 살길이다”고 호소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여수 관광객 대상 SNS 경품 ‘풍성’

내달 6일까지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응원 이벤트

여수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수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수시는 먼저 오는 9월 30일까지 여수관광웹드라마 패러디 인증샷 이벤트를 한다.

여수관광웹드라마 ‘신지끼의 사랑이야기’, ‘여명’, ‘마녀복’, ‘동백’을 패러디한 인증샷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 후 페이스북(여수 관광정보)과 인스타그램(goystour)에 URL을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디오션 콘도 숙박권과 낭만 버스 탑승권, 예술랜드 이용권, 야간크루즈 탑승권, 주간요트투어 이용권, 빅오쇼 관람권, 스카이플라이 체험권,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카트레이싱 체험권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달 16일부터 9월 6일까지 페이스북(여수 관광정보)에서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 이벤트도 열린다.

불꽃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고 댓글로 축제에 대한 기대와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여수관광문화홈페이지(www.yeosu.go.kr/tour)에서는 관광후기와 낭만버스탑승 후기 이벤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객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포스코케미칼 ‘사랑의 배터리’ 사업 눈길

광양·포항 장애인복지단체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지원

포스코케미칼이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랑의 배터리’ 사업을 펼쳤다.

포스코케미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광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과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지원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배터리 구매에 사용된다.

시청과 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 유

관기관과 협력해 8월 한 달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10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배터리 교체를 지원한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광양시와 포항시장 장애인 70여명,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이차전지 소재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청과 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 유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순천서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전시회

16일부터 한달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순천시가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법민홀에서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생태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대량 소비사회와 환경을 주제로 한 ‘크리스 조던:아름다움 너머’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법민홀에서 열린다.

크리스 조던은 백색에 플라스틱이 가득 찬 태평양 앨버트로스 사진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따른 환경 생태계 피해를 전 세계에 알렸고, 깊이 있는 예술사진과

독창적 기법의 작품으로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100회가 넘는 전시회를 가진 환경예술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이번 크리스 조던의 순천전은 환경예술 사진 분야의 독보적인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진, 영상 작품 63점과 함께 작가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앨버트로스’가 상영되며, 모두 무료다.



크리스 조던의 비너스.

전시기간 동안 해설 오디오가이드, 환경교육, 업사이클링 교육,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생태문화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해경교육원 독도 해양영토순례

해양경찰교육원이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독도 해양영토순례’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가족, 정책자문위원,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바다로함’에 승선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전남 여수를 출항해 추무공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남해와 아름다운 동해를 거쳐 독도까지 해양영토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행사로서, 항해 중에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이라는 주제로 이상태 한국영토학회장의 특강과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이라는 주제로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및 비상탈출훈련, 소화·방수훈련 등도 실시한다.

14일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함상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의장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함상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의장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함상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의장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함상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의장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랑의 배터리’ 사업을 펼쳤다. /포스코케미칼 제공

광양 사라실 예술촌 생생문화재 여름캠프 진행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이 13일부터 14일까지 ‘마로 550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 ‘성(城) 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마로산성)’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로550 여름캠프는 생생문화재 사업

‘성(城) 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4개 프로그램 중 ‘산성풍류야 마로 550 프로젝트’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캠프를 통해 지역 문화재에 대해 뿌리 깊게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캠프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첫날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교육, 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마로산성을 직접 걸어보며 산성이 단순히 군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마로현 행정치소의 기능을 했음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에서는 생생문화재, 문화재 활용사업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역사문화 콘텐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순천조례호수공원 물총축제 3천여명 몰려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순천조례호수공원에서 개최한 ‘제3회 순천조례호수공원 물총축제’에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해 조례호수공원이 올 여름 순천 핫플레이스로 났다.

축제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시민들이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물총싸움을 하는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물대포, 맨스타임, 물총사격대회, ○×퀴즈게임 등 푸짐한 경품이 함께한 신나는 물놀이 프로그램과 대나무 물총 만들기, 비치볼그림그리기, 소방안전교육,

물물교환 나눔장터 등 다양한 체험사가 진행됐다.

저녁에는 신기한 마술쇼와 순천시 아교라팀의 ‘한여름밤의 쿨 썸머 페스티벌’ 공연은 뜨거웠던 낮의 열기에 이어 시민들의 열정적인 환호속에 여름밤을 시원하게 마무리했다.

특히 왕조청년회와 자율방범대 등 왕조1동 직능단체가 주치안대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요원 역할을 맡아 사고 없는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보성 농특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

보성군은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성군에는 전문인력 2명이 배치되었으며 잔류농약·중금속 분석을 위해 분석장비를 활용,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수확예정일 약 15일전 재배포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제출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2019 희망곡성 대학생 멘토링 수료식

곡성군과 곡성교육청은 최근 곡성 미래교육관에서 ‘2019년 희망곡성 대학생 멘토링’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멘토링에 참여했던 광주교육대 및 전남대학교 사범대생 49명과

지역 초·중학생 50명이 참석해 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상장 수여와 멘토-멘티들의 소감 발표, 1:1 멘토링을 통해 짝지어졌던 멘토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구례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직무교육

구례경찰서는 13일 경찰서 3층 섬지마루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건의사항 및 복무규정 개선에 따른 직무교육이 이뤄졌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한 경찰·소방·교사 등 은퇴한 노인 전문인력을 선발해 아동의 움직임이 많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순찰하는 제도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